



정교회주보

제2430호

2023.7.23

한국 정교회 대교구 |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 Tel.(02)362-6371 | Fax.(02)365-2698 | orthodoxkorea.org



루마니아 북부의 유서 깊은 부코비나 지역은 벽화로 채색된 수도원이 많이 모여 있는 곳으로 유명하며, 이 중에 8개의 교회는 유네스코 세계 유산 목록에 등재되어 있다. 보로네트 수도원의 성 게오르기오스 성당(사진)은 15세기에 건립되었으며, 바깥벽에는 수백 명의 성인이 그려진 비잔틴 양식의 벽화로 이름이 높다. 특히 서쪽벽에 묘사된 '최후의 심판'은 세계적으로 알려졌다.



마태오 제 7 주일
에제키엘 예언자
성 포카스 사제순교자
(제6조 • 조과 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톰 성찬예배

- 제6조 부활 찬양송 82
 - 예언자 찬양송 84
 - 성당 찬양송
 - 주일 시기송 85
 - 사도경 : 로마 15,1~7 (봉)173
 - 복음경 : 마태오 9,27~35 112
-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구원의 인식

하느님께서는 우리 삶에 비밀스럽고 영적인 방식으로 명백하게 나타나신다. 이는 교회가 언제나 경험해 오던 것으로, 그저 모호한 회피의 말이 아니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타락한 세상, 죽음이 내재된 세상이다. 오늘 죽지 않는다면 내일 죽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라자로를 부활시키셨듯 오늘 우리를 부활시키신다 해도, 우리는 얼마 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질병이나 끔찍한 사고가 아니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하느님의 현존은 우리 각자에게 구원의 인식을 주기 위함이다. 현세에서의 건강이나 힘, 끝없는 삶이 아니라 불멸을 향한 열망, 영원애의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중에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암브로시오스 조성암 한국 대주교



우리의 삶은 평생 동안 여러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잘 알려진 대로 많은 걱정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스트레스는 여러 신체적 정신적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이런 까닭에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본인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않고 돌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적어도 가볍고 실없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살아갑니다. 본능에 따라 살아가고 자라는 식물이나 동물이 아닙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공중의 새들을 보아라”(마태오 6,26), “들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마태오 6,28)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더러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즉, 일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우리가 필요한 일들을 모두 다 했으면 그 후에는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관련된 것들을 건강한 방법으로 보살피는 것은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필수 요건입니다. 반대로, 불안과 걱정으로 보살피는 것은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그것은 스트레스와 불안과 두려움의 원인이 되고, 우리

의 삶을 병들게 하고 닳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는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부족하며 우리의 믿음이 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면의 전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변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대답은 주님께서 주십니다.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하느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마태오 6,33)

어떤 사람이 큰 프로젝트, 연구, 임무 등에 몰두하거나 어떤 일을 너무 좋아할 때, 다른 것들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 외의 것들은 모두 관심 밖에 있고, 설사 관심사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후순위를 차지합니다.

주님께서서는, 모든 것을 좌우하는 유일한 변화는 사람이 하느님의 뜻을 지키는 것을 가장 최우선에 둘 때 일어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바로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새로운, 살아 있는 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느님의 손안에서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끼며, 불안으로 점철된 걱정과 보살핌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와 미래를 돌보면서 살아가고 일할 테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 있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고요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언제나 돌봐주시니” 말입니다.(베드로 전서 5,7 참조)

성서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가르침 2

아타나시아 봉사자 엮음



“**ㄱ** 제야 읍은 일어나 겔옷을 찢고 머리를 깎았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욥기 1,20)

애도, 비탄, 상실에 대한 외적 표현으로서 자기 옷을 찢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고대의 전통으로 ‘케리아’(keriah)라고 일컬어지는데,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렬한 공적 행위로서 성경의 창세기에서 처음 언급되었습니다. 만아들 “르우벤은 구덩이로 돌아와 동생 요셉이 그 안에 없는 것을 보고 옷을 찢었다.”(창세기 37,29)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나서 조금 뒤에 아들 요셉이 들짐승들에게 잡아먹혔다고 생각한 아버지 “야곱은 옷을 찢었다.”(37,34)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왕은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자신의 옷을 잡아 찢었습니다.(사무엘 하 1,11) 엘리야가 회오리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을 때, “엘리사는 자기의 겔옷을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습니다.”(열왕기 하 2,11-12) 입다는 자신의 경솔한 맹세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입다는 자기 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옷을 찢으며 외쳤다.”(판관기 11,35) 모르드개는 유대인들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하만의 음모를 알게 되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알게 되자 모르드개는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걸치고 재를 뒤집어

쓴 채 대성통곡하며 거리를 지나 대궐문 앞까지 와서 멈추어 섰다.”(에스델 4,1-2) 아합왕도 엘리야 예언자가 자신에게 닥칠 하느님의 심판을 예고하였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아합은 이 말을 다 듣고 나서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걸치고 단식에 들어갔다.”(열왕기 상 21,27) 그리고 바울로와 바르나바는 리스트라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섬기려 했을 때 옷을 찢었습니다: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사제는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과 함께 사도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였다. 이 소문들은 바르나바와 바울로 두 사도는 옷을 찢으며...”(사도행전 14,13-14) 또한 대사제 가야파는 그리스도가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마르코 14,63)

때때로 자신의 옷을 찢는 행위는 또한 겸손과 비통함을 나타내는 다른 상징적 행동과 함께 이루어졌는데, 이를테면 머리칼을 자르거나, 굵은 베옷을 걸치는 것(사무엘 하 3,31), 또는 잣더미 위에 앉아서 머리 위로 먼지를 날려 뒤집어쓰는 것 등입니다.(욥 2,12)

그러나 비록 이런 행위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을 뜻한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는 요엘 예언자를 통해 ‘옷을 찢는 것보다는 마음을 찢는 것이 더 낫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요엘 2,13)



춘천 성 보리스 성당의 축일을 축하합니다

내일(24일) 축일을 맞는 춘천 성당에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하느님의 축복과 보리스 성인의 중보로 예레미야 조경진 신부님과 모든 신자가 영적생활에 풍성한 결실을 맺어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성당이 되길 기원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7월 24일(월)

성 크리스티나 대순교자
성 보리스 순교자

오전 9시 : 조과 및 성찬예배
(지역 성당 예배는 해당 성당에 문의)

■ 유튜브 성서 공부

대교구 유튜브 채널에 성서공부가 새로 게시되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이로써 골로사이 서신에 대한 해설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소식

■ 전주 성모안식 성당 성화 작업

그리스에서 온 성화 작가들과 한국 봉사자들 약 40명이 지난 월요일(17일)에 전주 성모안식 성당 벽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아래 사진) 이 거룩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신자 여러분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대교구 여름 수련회

오는 수요일(26일)부터 초중고등부 수련회가 전주 성모안식 성당에서 시작됩니다. 참가자들은 준비를 잘해주시고, 신자 여러분은 수련회가 무사히 진행되어 우리 아이들이 유익하고 거룩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광의 순교자

성인의 가르침

교회가 박해받던 시절에 한 신자가 자기 여종의 밀고로 붙잡히게 되었다. 심한 고문을 당한 후 참수형을 당하게 되어 도시 외곽으로 끌려가고 있을 때, 우연히 길에서 그를 밀고한 여종과 마주치게 되었다.

그는 그녀를 보자마자 금가락지를 빼서 그녀에게 주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쥐고 감사의 말을 건넸다.

“너로 인해 내가 그리스도의 순교자가 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었으니, 진심으로 고맙구나.”